



[낙농경영] 케토프로펜, 젖소 발굽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

- 발굽 피부염 완화는 물론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도움



젖소의 발굽질병 중 하나인 파행증(lameness)이 원유생산량 감소는 물론 유방염과 불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케토프로펜이 발굽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에서 발굽 피부염(digital dermatitis)을 앓고 있는 젖소 158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항생제 스프레이로 치료 후 한 그룹에만 케토프레펜(1kg당 3mg)을 주입하고 일주일 후 경과를 관찰한 연구가 수의학 소식지(Veterinary Record)를 통해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케토프레펜을 투여 받은 젖소 대비 그렇지 않은 젖소의 파행증 발생률이 2.57배나 높았으며 파행증으로 인한 절뚝거림이 계속될 가능성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유생산량도 투여 받은 젖소에 비해 약 3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파행증 등 젖소의 발굽 질병에 비스테로이드 함유증제(NSAID)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젖소의 건강복지 강화는 물론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farminguk.com, 2월 7일자 >

[시장동향] 캐나다, 원유가격 인상에 식음료 가격 급상승 전망

-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유제품 수요 감소에도 영향



캐나다의 원유가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겔프대학교 농업대학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일 캐나다 낙농위원회(CDC)가 생산비 상승으로 원유가격을 8% 인상함에 따라 유제품은 물론 우유 및 유제품을 활용한 식음료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임대료부터 연료비 등 모든 부문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제품 및 식음료 가격까지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값비싼 제품을 기피하고 수요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cambridgetoday.ca, 2월 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